

노점상 “카드! 카드!”…단말기 든 도우미 ‘장터 질주’

노점 카드결제 지원…곡성군 가차마을 전통시장 가보니

관광객·외지인 등 북적…시행 두 달 만에 6000만원 결제
군, 이달부터 수수료 지원…결제 시스템 체계화 등 필요

“카드! 카드! 여기 결제 좀 해주셔요!”

곡성가차마을 전통시장이 열린 지난 28일, 이른 아침부터 단말기와 장부를 품에 안은 직원들이 상인들의 부름에 부추, 당근, 파, 배추 등이 좌판에 깔린 좁은 매대 사이를 뛰어다녔다.

시장 상인들 표정에서는 전에 없이 활기가 느껴졌다. 곡성군이 노점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 서비스를 전면 도입해 주면서 손님이 부족 늘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손님에게 연신 “카드로도 (결제) 된다”고 안내하고, 노점상들을 위한 통합 카드 단말기를 가진 군 소속 ‘도우미’를 찾아 분주하게 장터를 돌아다녔다. 손님의 카드를 받아들고 카드 단말기를 든 도우미를 찾아 나선 상인들이 3~4명 줄을 서기도 했다.

상인들뿐 아니라 손님들도 화색이었다. 김장철을 맞아 시장을 찾은 김영렬(80)씨, 이순애(여·77)씨 부부는 청양고추를 구매한 뒤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려다, 카드 결제도 된다는 상인의 말에 다시 한번 장바구니를 열었다.

김씨는 “2만원 어치 마나리, 새송이버섯까지 필요한 거 한번에 다 사버렸다. 큰 마트에서는 지원금 선불카드를 받지 않아서 못 쓰고 있었는데 다행이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13일부터 곡성가차마을에서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전통시장 내 단말기가 없는 대부분의 노점상은 현금만 통하던 관행 때문에 지원금을 쓰지 못

해 소비쿠폰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노점상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도우미 역할을 맡은 군 소속 군내버스 안내원이 상인회 보유 카드리더기 2대와 종이를 들고 다니며 판매 물품과 금액, 상인 이름과 연락처를 수기로 적고, 다음 장날 아침 상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군은 지난달부터 곡성가차마을·육과·석곡 전통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정식 사업으로 전환했다.

시범사업까지만 해도 노점상의 수익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상인회가 부담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곡성군이 지원한다.

사업 시행 이후 매출도 늘어났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달 사이 곡성가차마을 시장에서는 총 1871건, 6000여만원의 결제 실적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결제가 시행된 지난 10월 3일 가차마을 전통시장 결제건수는 17건, 매출액 45만6000원에서, 지난 3일에는 23건, 88만원, 지난 23일 414건, 1397만000원으로 집계됐다.

콩나물과 상추를 매대에서 정리하고 있던 이옥남(여·68)씨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현금없으면 계좌이체 하거나 노점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타지인들이나 관광객도 와서 카드로 사간다”며 “전남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못 해 갖고 어디 쓸까 하던 사람들이 다 와서 쓰니까 매출도 많이 뛰었다.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정자(65)씨는 “큰 돈은 안돼도 혼자 집에 있



곡성군 곡성읍 곡성가차마을 전통시장 장날인 지난 28일 노점 카드결제 도우미가 마나리를 구입한 손님의 카드를 단말기에 긁고 있다.

으면 심심하니까 마을 사람들이랑 나와서 그동안 농사 지은 거라도 팔고 있는 거다”며 “카드쓰러 젊은 사람들도 오니까 더 북적거리고, 옛날보다 더 많이 가져가니까 장에 나오는 보람도 있다”며 웃었다.

상인들은 이용객들의 카드사용이 증가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등 선불카드 지급 등으로 카드 결제 인프라 확대되는 것이 절실했던 만큼 이번 사업이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 차원에서도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처가 극도로 제한되는 농촌지역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단계인 만큼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의 체계

가 부족한 등 과제도 남아 있다.

고령의 상인들이 영수증에 작게 쓰여진 잔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점, 사후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상인이 보관하면서 손님에게 영수증을 줄 수 없다는 점 등 문제가 남았다.

이경자(여·79)씨는 “선불카드를 쓰고 나서 잔액을 확인하려 하는데 상인이 영수증을 읽기 힘들어 했다”며 “내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야 또 쓸 텐데 영수증을 못 가져가니까 아쉽다”고 말했다.

또 매출은 전부 상인회 계좌로 들어오지만 실제 판매 주체는 개별 노점인 데다 모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판매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곡성군 도시경제과 관계자는 “카드 리더기 추가

확보와 예비 장비 마련을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동안 결제건수와 매출증가 등 운영성과를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QR결제와 간편결제 등 확장형 디지털 결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영수 곡성가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지금까지는 상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카드결제를 해왔다가 상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는 걸 깨닫고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 제도적인 보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학살자’가 아직도 현충원에 있다니

5·18기념재단, 역사 왜곡 현장 탐방 행사…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광주학살 5적·군사 쿠데타 5인방 등 문혀…“국가예우 더는 안돼”

“광주 시민을 학살한 박준병이 현충원에 묻히고 국가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광주 시민으로서 묘는 한 번 밟아주고 가야겠어요.”

5·18기념재단은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5·18 역사 왜곡 현장 탐방’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 공로 자회·부상자회, 오월이며니집 등 5·18 관계자, 전남대 5·18연구소, 광주흥사단, 인문연구원 동고송 시민 등 28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현충원 장군1·2묘역에서 국가예우를 받고 있는 5·18 광주 학살자 등 묘지를 직접 확인하고 국립묘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충원 내에는 광주학살 5적(전두환·노태우·정호용·박준병·이희석) 중 한 명인 박준병 제2보병사단장의 묘가 있었다. 박준병이 이끌던 20사단은 전방부대임에도 1980년 5월 21일 오전 광주의 외곽을 봉쇄하기 위해 광주에 증파됐으며, 21일 밤 광주·목포간 도로에서 광주시로 들어오는 민간인 차량에 무차별 발포했다.

박준병의 묘비에는 그의 가족이 쓴 ‘지장·덕장으로 일생 국가에 헌신하시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받들오로 수고하셨다’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5·18 당시 시위대 진압 임무를 맡아 광주도청진압작전을 직접 수행한 소준열 계엄본소장의 묘도 있었다. 소준열은 5·18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 시위

를 진압한 뒤 신군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며 만연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던 이다.

또 현충원에는 전두환에게 5·18 유혈진압을 건의한 진중재 제2군사령관의 묘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진중재는 전두환에게 총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하고, 전두환은 건의 문서에 ‘굿 아이디어’ 문구를 적는 등 5·18 진압 작전에 깊게 관여된 인물이다.

이밖에 12·12 군사반란 ‘간판 5인방’으로 꼽히는 유학성 제3군사령관과 정동호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정도영 보안처장, 김윤호 제1군단장 등이 현충원에 묻혀 있었다.

정성일 (사)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이들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역사적 책임이 있음에도 국립묘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직도 국가예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서민경 기자 minky@

본격 추위…기온 급하강
광주·전남 내일 아침 최저 0~4도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를 체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부터 중구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고 예보했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0~4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를 보인 뒤 3~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2도로 영하권 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내용물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대기하층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1일 오전 사이 전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워지니 따뜻한 옷차림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김옥수 의원 ‘출석정지 30일’
광주 서구의회 윤리위 의결

광주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회기 중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비위 의혹을 거론한 무소속 김옥수 서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구정질문 중 김이강 청장의 과거 비위 의혹을 언급했고, 당시 의사진행을 맡았던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이 “구정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김 의원을 제지한 뒤 회의는 종료됐다.

한편 김 의원이 거론한 김 청장의 비위 의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의제기 뒤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